

#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에서의 고전문학 작품 비교 연구

-전래 동화를 중심으로-

김서형\*

<차 례>

1. 서론
2.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학 교육
3. 한국어 교육과 국어 교육에서의 고전 문학 교육
4.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의 고전 문학을 효율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고전 문학 작품의 학습 목표 및 교육 내용에 대해 살피고, 국어 교육에서의 고전 문학을 교육을 한국어 교육에 적절히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한국어 학습자들도 (중·고급) 수준을 넘어가면 한국인의 인식 세계와 사회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아야 한다면 이는 내국인의 한국 전통 문화를 공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내국인의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문학 작품은 초등 교육에서 학습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초등 국어 교과서와 한국어 교재의 고전 문학 작품을 비교하였다.

먼저 국어과 교육 과정의 목표와 일반 한국어 교육과정의 목표를 검토하고, 초등 학교 국어 교과서와 대표 한국어 교재의 고전 문학 작품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의 관계성 정도에 따라 학습 목표가 달리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공통되었으나 목표 수행을 위한 연습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국어 교육에서의 고

\* 경기대학교

전 문학 작품의 목표는 기초 언어 능력 향상에서 점차 문화적 정서를 성취하는 것으로 변화한 반면, 한국어 교육에서의 그것은 등급에 관계없이 특정 언어 기능 수행을 주된 목표로 삼았다. 이를 통해 한국어 교육에서도 상급 단계에서는 문학 작품의 가치를 해석하고 의의를 찾아보는 연습 활동을 보완하여 한국인의 문화와 문학에 접근하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국어과 교육과정, 일반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 전래 동화, 교육 목표, 교육 내용

## 1. 서론

외국어 교육에서 문학의 도입이 갖는 효용성은 여러 면에서 상정될 수 있다. 문학을 통해 목표어 문화권의 정서나 가치관 등을 습득할 수 있다는 문화 모델(Cultural), 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언어의 다양한 모습이 언어 습득에 도움이 된다는 언어 모델(Language), 문학이 삶의 확대를 제공하여 사고 능력 함양이라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게 한다는 개인 성장 모델(Personal Growth) 등이 그것이다.(Carter & Long 1991, 황인교 2005 재인용)

이를 바탕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도, 문학 작품이 한국 문화와 고급 수준의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교육 자료로서의 가치를 주장하며, 문학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연구들이 나타났다.(윤여탁 1999, 김대행 2000 등) 이후, 문학 교육이 한국어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를 교육에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는 한국어 교육학계에서 대체로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문학 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문학 교육의 영역 및 범위와 위계화, 텍스트 선정 원리 및 목록화, 작품의 발췌 및 수록 형태(작품의 재구성), 수업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 이론화

나 체계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이성희(1999), 홍서연(2001), 주은정(2002), 서희정(2005), 신윤경(2008) 등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학 교육은,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의 관계성 인식에 따라 언어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의 중요성이 달리 주장된다. 예를 들어 한국 문학 작품이라면 문학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보여주는 문학 자료, 한국어의 언어 학습 자료, 한국인과 한국 사회의 특성을 알 수 있는 문화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각각은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의 학습 목적, 언어 숙달도, 교재 활용 가치 등에 따라 반영 정도가 달라진다.

다른 언어권에서의 외국어 교육과 마찬가지로, 한국어 교육에서도 언어적 능숙성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언어·문화적 성취를 동반토록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어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문화 현장 견학 및 실습을 학습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학습 교재나 학습 활동에 한국의 문학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 문학 작품으로는 거의 대부분 현대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인에게 매우 익숙하고 일반화되어 있는 한국의 고전 문학 작품과 구비 전승 등을 다루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는 고전 작품은 장르나 작품 목록이 매우 한정적이며,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연구도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강혜민(2006), 문보라(2009), 장원기(2010) 등이 여기에 관심을 보인 정도이다.

고전 문학 작품들이나 구비 전승들은 오랜 동안 언중들이 곁에 두고 읽고 말해 온 결과물들이다. 한국의 고전 작품에는 한국인의 정서와 정신 등 한국 문화가 배어 있다. 이런 점에서 중·고급 단계의 한국어에서는 한국 문화의 원형과 전통성을 보여주는 고전 작품들을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인과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여 능숙한 한국어 화

자가 되는 데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고전 문학 작품에 대하여 학습 목표 및 교육 내용 등을 대조적으로 살펴보고, 국어 교육에서의 고전 문학 교육을 한국어 교육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은 교수 대상 및 목적 등에서 오는 차이로 인해 교수 내용이나 방법에서 차이를 갖는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아야 한다면 이는 내국인의 가지고 있는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과 공유되는 것이 의사소통의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나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내국인의 초등학교 국어 교재와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고전문학 작품을 검토 하면서, 학습 내용 등에 관한 문제점이나 교육 내용 선정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 2.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학 교육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 교육은 교육 기관에 따라 차이가 적잖이 나타난다. 특히 고전 문학 작품의 도입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 5개 대학의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문학 작품들의 수용 양상을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경희대학교 『한국어 초급1~고급2』,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 1~6』, 서강대학교 『서강 한국어 1A~5B』, 연세대학교 『연세 한국어 1~6』,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한국어 1~6』이다.<sup>1)</sup> 이들은 모두 일반 목적 학습자들을 위한 교재이다.

1) 한국어 교재는 대학 교육기관의 교육 이념 및 이론을 바탕으로 자체 개발·제작되고 있다. 교육 내용에서는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교육 수준별 목표 및 범위는 어느 정도 일반성을 보인다. 일반 목적 교육과정에서는 초·중·고급 체계에 따라 교재가

먼저 한국어 교재에서 목표 교육 내용으로 선정된 문학 작품은 다음과 같다.<sup>2)</sup> 교재에 제시된 장르를 따라 정리하였다.

〈표1〉 각 대학교의 교재에 수록된 문학 작품

단계/ 교재	A	B	C	D	E
초급1	-	-	-		-
초급2	-	-	1)전래 동화: 콩쥐 팥쥐		-
중급1	-	-	1)전래 동화: 금도끼은도끼		-
중급2	1)전래 동화: 콩쥐 팥쥐*,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젊어지는 샘물 2)고소설: 토끼전 **, 효녀 심청, 3)신화: 단군 신화	-	1)신화: 고구려·백제·신라의 건국 신화, 단군 신화 2)시: 꽃 3)수필: 내가 사랑하는 사람 구두		-
고급1	1)고소설: 춘향전 2)수필(기행문): 여행 3)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 소중한 하나	1)시: 진달래꽃, 서시, 꽃, 승무 2)수필 : 나무	1)시: 말의 힘 2)수필: 나의 사랑하는 생활 3)전래 동화: 창개구리 이야기, 해님달님, 흥부와 놀부		1)시: 귀천, 내 마음은
고급2	1)시: 귀천	1)소설: 봄봄, 누가 해변에서 함부로 불꽃놀이를 하는가			1)소설: 아홉살 인생

※ \*, \*\*: 비슷한 줄거리의 외국 문학 작품과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 언급되는 수준이다.

구성되며, 교재에는 언어 기능을 통합하여 훈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2) 각 교재별로 우수성이나 문제점을 비교하는 것이 논의의 목적이 아니므로 이하에선 교재명을 A,B,C,D,E 대학교의 교재로 대신하며, 등급명도 초급1~고급2의 6등급 체계로 통일하여 기술한다. 교재에는 문화 항목으로서 단순히 문학 작품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본고에서는 교육 내용으로서의 문학에 관심을 두므로 교육 목표로 다루는 항목만을 대상으로 한다.

A 대학교의 교재에서는 중급 후반부에서 문학 작품을 다루고 있다. 고급 1단계의 작품들은 ‘옛이야기’라는 독립된 단원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다른 문학 작품들은 언어 기능 연습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다.

B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에는 고급에서 문학 교육을 하고 있다. 고급 1단계에 해당하는 교재에서는 한 단원의 목표가 한국의 대표적 시와 수필을 이해하는 것이다. 문학 작품 감상하기, 함축적 표현 이해하기를 목표 기능으로 삼고 있다. 시인의 심정이나 시에 나타난 정서를 이해하기, 시어의 의미 파악하기, 주제 찾기 활동으로 감상을 유도하고 있다. ‘서시’의 경우 시대적 배경을 추측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문학이 내포하는 역사 문화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고급 2에서도 한 단원이 한국 소설 감상하기를 목표로 한다. 한국의 단편 소설 전문을 읽고 등장인물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 작품에 대한 감상 쓰기 활동을 통해 문학 작품으로서 텍스트를 사용하고 있다.

C 대학교의 교재에서는 단원의 목표 주제나 소재와 관련하여 문학 작품을 선정하고 있다. 중급1 단계에서는 ‘분실’이라는 주제를 다루는데 이와 관련된 전래 동화를 4~5문장으로 요약하여 듣기 텍스트로 사용하였다. 중급 2에서는 서술하기와 감상하기를 목표로 하는 단원에서 언어 기능을 학습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 것이다. 그러나 고급에서는 각각 문학, 전래 동화라는 단원에서 문학 교육의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등급에 따라 언어 교육 자료에서 문학 교육의 대상으로 목적이 달라진 것이다.

D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에는 문학 작품이 교육 내용으로 선정되어 있지 않다. 이 대학 교육 기관은 『한국어 읽기』라는 별도의 교재에 문학 작품을 다수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교재는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원하는 학습자들이 선택하여 듣는 수업에서 주로 사용되므로, 다른 교재들과 비교하는 데 무리가 있다.<sup>3)</sup>

E 대학 교재에서 문학은 고급 단원에서 목표 내용으로 선정되었는데, 모두 현대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고급1에서는 현대시를 읽고, 모방하여 시를 써 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문학 교육으로서의 문학을 제시하고 있다. ‘귀천’은 ‘-(으)리라’ 문법 항목의 사용을 보여 주기 위한 텍스트로, 시라는 문학 작품을 교육하는 데도 활용되었다. 두 편의 시 내용과 관련 되는 연습 활동으로는 시적 자아와 시어가 나타내는 의미 분석과 관련 되는 것이다. 고급2 단계에서는 소설을 읽고 희곡으로 각색하는 활동을 하면서 장르적 특성을 파악하는 연습을 활용하고 있다.

검토 결과, 각 교재에서는 문학 작품을 거의 대부분 중급에서부터 교육하고 있으며, 전체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총 학습 내용에서 A와 C 대학의 교재를 제외하고 3% 미만으로, 문학 작품 혹은 문학 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재마다 현대 작품만을 다루는 경우도 있고, 고전과 현대를 모두 다루되 고전 작품이 좀더 우세한 비율로 등장하기도 한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아래의 <표2>에서 보듯이, 교재마다 문학을 다루는 비중의 편차가 크다는 것이다. 그동안 문학 교육에 대한 연구에서는 문학 작품의 선정과 목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아직 교육 현장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음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또한 문학 교육보다는 문화 교육의 한 부분으로 문학을 다루는 교육 현장의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위에서 조사한 각 교재에 나온 문학 작품들이 보이는 현대 작품과 고전

- 
- 3) 장원기(2010:24~25)는 초급과 중급을 대상으로 하는 읽기 교재에서 약 12편의 고전문학 작품이 제시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초급에서의 전래 동화(거울, 동물의 나이 자랑, 소가 된 사람, 효성이 지극한 호랑이), 중급1에서의 고소설(효녀 심청, 흥부전), 중급2에서의 단군 신화와 시조(한 손에 막대 잡고, 방안에 헛는 촛불, 동짓달 기나긴 밤을, 태산이 높다 하되, 짚방석 내지 마라)이다.

작품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표2〉 각 교재에 나타난 문학 작품의 비율

수록 종합	6개 단원 /78개 단원	2개 단원 /80개 단원	8개 단원 /76개 단원	0개 단원 /60개 단원	2개 단원 /70개 단원
		7.7%,	2.5%	10.5%	0%
현대 문학과 고전 문학의 수록 비율	총9편 (현대 2편, 고전 7편)	총 7편 (현대 7편, 고전 0편)	총11편 (현대 4편, 고전 7편)	총0편	총3편 (현대 3편, 고전 0편)
	22.2% : 77.8%	100% : 0%	36.4% : 63.6%	0%	100% : 0%

또한, 교재에 나타난 장르별 작품 분포도는 다음의 <표3>과 같다.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것은 전래 동화이며, 이 가운데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2개 대학의 교재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중급과 고급 교재에서 각각 다루어지고 있어, 교재에 수록된 형태 및 수준도 달리함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2개 대학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단군 신화’와 ‘귀천’은 각각 중급, 고급에서 제시되어 이들이 모두 동일한 등급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교재에 나오는 작품을 장르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3〉 장르별 작품 분포도

전래 동화(8편)	콩쥐 팥쥐, 해와 달이 된 오누이/해님 달님, 젊어지는 샘물, 금도끼 은도끼, 청개구리 이야기, 선녀와 나무꾼, 소중한 하나, 흥부와 놀부
현대 시(6편)	귀천, 진달래꽃, 서시, 꽃, 승무, 내 마음은
현대 수필(4편)	여행, 나무, 내가 사랑하는 사람 구두, 나의 사랑하는 생활
현대 소설(3편)	봄봄, 누가 해변에서 함부로 불꽃놀이를 하는가, 아홉 살 인생
신화(2편)	단군 신화, 고구려·백제·신라의 건국 신화
고소설(2편)	효녀 심청, 춘향전

<표3>에서 문학 작품 가운데 전래 동화가 가장 많이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래 동화가 짧지만 완결된 서사 구조를 이루고 있고, 주제가 단순하고 재미있는 내용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들은 성인으로서의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학 교육은 언어 수준과 함께 문화나 의식 구조와 관계하여 학습자의 인지적 능력도 고려하여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학 교육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학은 첫째, 언어 표현을 배우기 위한 학습 자료와 문학 자료로 활용되었다. 고급 단계에서는 주로 문학 자료로 활용되었으나 작품이 갖는 문학성이나 그 작품과 관련한 문화적 맥락에 대한 설명은 미비하였다. Allen(1983)은 사회문화적 규칙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문학의 효용도가 높다고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도 한국 문학을 학습하면서 한국 문화와 관련된 항목을 교재에서 명시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다.

둘째, 어느 교재에서는 현대 문학 작품만을 교육 내용으로 삼아 현대 한국인의 정서를 보이는 데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상적인 대화의 언어적 능숙성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와 의식에 대한 이해도 함께 하는 것이 최근 한국어 교육의 목표이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위해서는, 현대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한국인에게 매우 익숙하고 일반화되는 한국의 고전 문학 작품과 전래 동화 및 구비 전승 등을 소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일부 교재들에서는 한국 고전 작품이나 전래 동화를 조금씩 소개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전래 동화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으며, 더욱이 내용을 너무 쉽게 개작을 하여 한국의 고전 작품으로서의 문학성과 전통성이 잘 전달되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어, C대학의 중급 교재에서 보이는 전

래 동화에 대한 내용은 전래 동화 자체가 갖는 재미와 미적 가치를 거의 느끼기 어렵다. 심청전도 ‘공양미, 삼백석’과 같은 어려운 어휘도 사용하면서 정작 심청전이 갖는 한국 문화적인 내용은 거의 알 수 없이 요약되어 있다. Terdal(1993)은 원전 문학 작품이나 민속담을 교수 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학습자 언어 수준에 맞추어 원전을 개작할 수는 있겠지만, 이해 교육의 목표를 고려한다면 원전에 가까운 수준에서 작품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어 모어 화자는 한국 사회에서 살아서 한국의 문화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들은 교재나 모어 화자와의 만남과 같이 의도된 참여로 문화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 문학을 학습하면서 문화와 관련한 항목을 접하도록 교재에서는 한국인의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문학 자료를 선정하여 모어 화자가 접하는 정도의 언어 수준에 맞춰 제시하고, 이에 관련된 한국 문화를 명시적으로 설명하거나 드러내는 과정이 요구된다.

### 3. 한국어 교육과 국어 교육에서의 고전 문학 교육

이 장에서는 한국어 교재에서 고전 문학 작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제시 형태 및 활용 방식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어 교육에서는 고전 문학이 어떤 수준으로 활용되는지도 살펴 한국어 교육에서의 고전 문학 교육과 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어 교재에서는 교재마다 고전 문학의 비중이 달리 적용되는데, 본고의 논의 대상인 교재 가운데에서는 A 교재, C 교재에서 고전 문학 작품을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고 있다.

〈표4〉 A에 수록된 고전 문학 작품

단계	단원의 주제 및 목표 기능	작품명	장르	수록 형태	활용 영역	연습 활동
중급 2	1)옛이야기 2)각 나라의 이야기 비교하여 설명하기, 추측하여 이야기 완성하기, 연극 공연하기	1)해와 달이 된 오누이 2)효녀 심청 3)짚어 지는 샘물 4)단군 신화	전래 동화 고소설 전래 동화 신화	부분 요약 부분 요약 전문 요약 전문 요약	듣기 읽고 말하기 읽기 읽고 말하기	세부 내용 파악하기, 앞뒤 내용 추론하기, 연극으로 개작하기
고급 1	1)대중문화	1)춘향전 2)선녀와 나무꾼 3)소중한 하나	고소설 전래 동화	부분 요약 부분 요약 전문 요약	읽고 쓰기 읽고 말하기 듣기	줄거리 재구성하기, 글의 장르 파악하기, 결말 추론하기, 자기 나라 이야기와 비교하기, 각색하기, 역할극 하기

A에서는 단원의 도입에서 ‘좋아하는 옛날 이야기가 있는지, 한국의 옛날 이야기 중에서 알고 있는 것이지를 묻는’ 것으로 도입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옛날 이야기의 개념 설명 대신 신데렐라와 콩쥐팥쥐, 우라시마 타로와 토끼전을 비교 문학의 관점에서 기술하는 수준이어서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나 교수 방법을 예측하기 힘들다. 교수자는 교재를 보충하는 자료 및 연습 활동 등을 준비해 갈 것이다. 예를 들어 설화 문학의 개념, 옛이야기가 주는 교훈, 그 작품이 한국인의 정서에 미친 영향을 통한 의 등을 전달해야 할 것이다.

〈표5〉 C에 수록된 고전 문학 작품

단계	단원의 주제 및 목표 기능	작품명	장르	수록 형태	활용 영역	연습 활동
초급 2	1)가족의 성격 2)가족에 대해서 말하기, 성격 비교하기, 옛날과 지금 비교하기	콩쥐 팥쥐	전래 동화	전문 요약	읽고 말하기	빈 그림의 내용 추측하기, 글을 읽고 성격 메모하기
중급 1	1)분실 2)상태 묘사하기, 물건 묘사하기	금도끼, 은도끼	전래 동화	전문 요약	듣기	들은 내용과 같은 답 고르기
중급 2	1)정말 신기한 꿈이군요. 2)서술하기, 추측하기	1)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 신화 2)단군 신화	신화	전문 요약	읽기 읽고 말하기	읽은 내용을 서술하기, 추측하기
고급	1)전래 동화 2)나누어 읽고 줄거리 전달하기, 사건의 순서 이해하기, 세부 내용 파악하기	1)청개구리 이야기 2)홍부와 놀부 3)해님 달님	전래 동화	전문 요약	읽기 읽기 읽기	등장인물의 성격과 줄거리를 파악하기, 글의 교훈 찾기, 학습자 나라의 전래 동화 소개하기, 순서대로 이야기 완성하기

C에서도 ‘한국의 전래 동화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로 단원을 도입하면서 주인공의 성격 등에 관심을 갖고 읽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어서 의성 의태어 어휘 교육에도 이 자료들이 활용된다. 전래 동화에는 특정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어휘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두 교재 모두가 전래 동화를 독립된 단원으로 다룰 만큼 문학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안내하고 학습시키기 위한 것이다. 학습자 언어 등급 수준을 고려해 교재에서 제시되고 있는 텍스트의 길이 및 활동에는 차이를 보였다. 고급 교재의 특성을 살린 것인지, 그 교재 집필진의 의도인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중급에서는 언어 자료로서, 고급에서는 문학 자료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작품이 갖는 문학적 의의를 고려한다면 주요 줄거리와 관련된 내용 이해 활동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한국어 교재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전래 동화 ‘해님 달님’의 교육 내용이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 작품이 제한적으로 등장하는데 반해 해님 달님은 두 개 교재에 수록되어 있다.

〈표6〉 한국어 교재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전래 동화 : 해님 달님

A	초년급	내용	옛날 옛날 깊은 산 속에 홀어머니와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아이들이 문틈으로 밖을 보니 호랑이의 손이 보였어요.
		진습활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 빈칸을 채워주세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옛날 옛날 깊은 산 속에 _____ 살고 있었어요.</li> <li>어머니는 놀라서 심장이 _____, 정신을 차리고 얼른 떡 하나를 집어 주었어요.</li> <li>아이들이 _____ 호랑이의 손이 보였어요.</li> </ol> </li> <li>본문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주세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머니는 잔칫집에 일을 하러 갔었다.</li> <li>호랑이는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떡을 모두 먹었다.</li> <li>호랑이는 어머니와 함께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갔다.</li> <li>호랑이는 어머니를 잡아먹었다.</li> </ol> </li> <li>아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호랑이가 소리가 들려서</li> <li>호랑이의 손이 보여서</li> <li>어머니 손이 보여서</li> <li>어머니 목소리가 아니어서</li> </ol> </li> <li>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뒷이야기를 만들어 보주세요.</li> </ol>
C	고년급	내용	옛날 옛날 깊은 산 속에 엄마와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호랑이는 땅에 떨어져 죽고, 하늘나라에 간 오누이는 하늘의 해님과 달님이 되었답니다.
		진습활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래 동화를 읽고 각 문단의 순서를 찾으십시오.</li> <li>누가 다음 행동을 했는지 써 보십시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엄마는) 아이들이 배고플까 봐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lt;중략&gt;</li> </ol> </li> <li>읽은 내용에 대해 묻고 대답하십시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엄마는 왜 아이들을 집에 두고 이웃 마을에 갔습니까?</li> <li>왜 호랑이는 엄마를 잡아먹었습니까? &lt;중략&gt;</li> </ol> </li> <li>함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러분 나라에도 해와 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li> <li>여러분이 위의 이야기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습니까</li> </ol> </li> <li>읽은 내용을 정리하여 말해 보십시오. 그림을 보고 줄거리를 이야기해 보십시오.</li> </ol>

이지영(2008:172)은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전형적인 줄거리는 ‘호랑이가 산길에서 어머니를 잡아먹는다. 호랑이는 남매가 사는 집에 찾아서 이들을 잡아먹으려 한다. 아이들이 피를 내어 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하늘의 도움을 받아 해와 달이 된다. 그러나 호랑이는 줄에서 떨어져 수숫대에 떨어져 죽는다.’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기술하였다. A교재는 부분 요약, C는 전문 요약을 하였는데, 수록 형태는 학습 목표와 교육적 의의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정소영(2006)은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교육적 의미로, 창세 신화의 역사성을 통해 긍정적인 세계관 형성, 선을 행해야 한다는 교훈,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력, 고난을 극복하려는 의지력을 배양, 창의력 등 사고 능력 함양을 들었다. 이런 교육적 의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전문 요약이 더 적절할 것이다.

‘해님 달님’을 통해 한국인이 생각하는 호랑이상(친근하지만 무섭기도 한 동물), 시골 산골에 사는 한국인들의 생활 모습, 위기에 처해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한국인의 기지와 해학을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공감하도록 하는 것을 학습 활동에서 드러내 보일 필요가 있다.

국어 교육에서도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2011년 개정 교육과정 고시(2011-361호)에 따라 2013년부터 초등학교 2학년 1학기용 국어 교과서에 인형극으로 제시된다. ‘이야기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장소의 변화에 따라 차례로 맞게 말하기, 이어주는 말 익히기’의 기능 수행을 목표로 설계된 단원에 등장한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와 관련한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표7〉 국어 교육에서의 ‘해님 달님’

글의 종류	막대 인형극의 대본
등장인물	호랑이, 어머니, 오빠, 동생
생각해 볼 점	장소의 변화와 인물들이 한 일에 주의하며 일이 일어난 차례를 생각해 봅시다.
수록 형태(전문) 및 내용	<p>전문</p> <p>굽이굽이 골짜기가 깊은 산속에 초가집 한 채가 멀리 보인다. 음침하고 으스스한 분위기의 배경 음악이 서서히 찾아들고, 무대 오른쪽에서 떡 광주리를 머리에 인 어머니가 지친 모습으로 등장한다.</p> <p>어머니 : (머리에 이고 있던 떡 광주리를 잠시 내려놓고 이마의 땀을 닦으며), 아이고, 벌써 어두워졌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빨리 가야겠구나.</p> <p>&lt;중략&gt;</p> <p>해설: 하늘에서 내려온 썩은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다 그만 떨어져 죽고 말았답니다.</p> <p>호랑이: 으~아악, 호~호랑이 살려!</p>
연습 활동	<p>1. 호랑이를 만났을 때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1)무섭다 2)반갑다 3)아쉽다 4)미안하다 5)안타깝다</p> <p>2. 호랑이가 어머니의 옷을 입고 오누이의 집으로 간 까닭은 무엇입니까? 1)날씨가 추워서 2)어머니가 시켜서 3)오누이를 잡아먹으려고 4)어머니의 옷이 마음에 들어서 5) 어머니의 옷을 버리기가 아까워서</p> <p>3. 호랑이가 쫓아왔을 때 오누이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1)어머니를 부러워하는 마음, 2)호랑이는 보고 신기한 마음 3)호랑이를 혼내 주어서 기쁜 마음 4)무서워서 빨리 도망가고 싶은 마음 5)술래잡기를 하는 것 같아 재미있는 마음</p>

위 교육 내용은 문학과 문화에 대한 성취가 아닌 언어 기초 능력 향상을 위해 활용된 것이다. 이는 다음의 ‘국어’ 교과와 목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8〉 ‘국어’ 교과와 목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1호 별책5)

<p>‘국어’ 교과의 목표</p>	<p>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국어 활동의 맥락을 고려하여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문화를 누리면서 국어의 창의적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힌다. 나. 다양한 유형의 담화와 글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생산한다. 다. 국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어 생활을 능동적으로 하는 태도를 기른다.</p>
<p>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목표</p>	<p>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1)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균형있게 자랄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일의 세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한다. 2)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3) 우리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올바른 태도를 기른다. 4)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타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태도를 기른다.</p>
<p>문학 과목 목표</p>	<p>실제: 다양한 갈래의 문학 시(시가), 소설(이야기), 극, 수필, 비평 다양한 매체와 문학 지식: 문학의 본질과 속성, 문학의 갈래, 문학 작품의 맥락 수용과 생산: 작품 이해와 해석, 작품 감상, 작품 비평과 소통, 작품 창작 태도: 문학의 가치와 중요성, 문학에 대한 흥미, 문학의 생활화</p>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에는 ‘우리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올바른 태도를 기른다.’가 있으나 초등 교과서에는 한국인의 전통 의식과 문화적인 면에서 어떠한 문화적인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학습 활동이 없다. 담당 교사가 학년의 학생 수준에 맞추어 문화적 요소를 언급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지만 교재의 학습 활동에서 이와 관련하는 질문이나 요구는 없이 전체 내용 파악 정도를 목표로 하는 연습들이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한국인의 의식이나 문화를 파악하고자 하는 학습 활동은 다소 어려울 수 있다. <표7>에서 보듯이 ‘해님 달님’의 활동은,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 중 ‘문제 해결 인식’ 혹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과의 공감

하는 태도 함양 정도를 성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모국어 교육에서의 문학 작품은 저학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 문화 교육과의 관련성보다는 표현 능력의 성취를 목표로 하는 언어 교육과의 관련성이 더 크다.

국어 교육에서도 학년 수준이 높아지면 고전 문학 작품을 활용한 문학 교육과 언어·문화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학년 1학기 국어 읽기에는, 이청준의 ‘심술보 터진 놀부’가 수록되어 있다. ‘함께 하는 마음’이라는 주제 단원에서 ‘웃음을 주는 글의 표현 특성을 알아봅시다. 재미있는 표현을 생각하며 작품을 읽어 봅시다’라는 목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의 옛이야기를 통해 풍자와 해학을 느낄 수 있다는 글에 대한 특성에 설명과 함께 이 특성이 잘 보이는 장면을 선택하여 학습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 교육을 목표로 한 교육 자료로 제시한 것이다.

〈표9〉 국어 교육에서의 ‘흥부와 놀부: 심술보 터진 놀부’

장르	이야기
제시 단계	6학년 1학기 읽기 자료
단원의 목표	웃음을 주는 글의 표현 특성을 알아봅시다. 재미있는 표현을 생각하며 작품을 읽어 봅시다.
단원의 목표 장르 소개	뜻: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게 해 주는 글 특성: 웃음을 주는 글은 표현과 내용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우울함, 불안감, 긴장감 등을 사라지게 한다. 그리고 우리의 옛이야기를 읽으며 풍자와 해학, 은근한 비유 등으로 웃음을 이끌어 내는 장면을 살펴보면 웃음을 찾을 수 있다.
수록 형태	부분 발췌(부자가 된 흥부에게 찾아와 부자가 돈 방법을 물어 보고, 흥부에 가서 화초장을 받아 돌아가는 부분)
수록 내용	놀부는 이 무렵 흥부네 소식을 듣고 샘이 나고 화가 나서 제 풀에 앉아놓고 말 지경이었다. <중략> “장화초? 초화장? 장초화……?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나? 이놈의 머리통 질말로 답답해 못 참겠구나!” 머리가 제법 편찮은 위인이라면 물론 그런 일까지 없었을 터였다.

내용 이해 보조 수단	삽화
(흥부와 놀부)의 학습 목표	재미있는 표현을 생각하며 작품을 읽어 보기
연습 활동	-

국어 교육에서의 목표와 달리, 다음과 같이 한국어 교육에서 이 작품은 줄거리 전달하기 기능 수행을 위한 언어 교육 자료로 활용되었다.

〈표10〉 한국어 교육에서의 ‘흥부와 놀부’

장르	전래 동화
제시 단계	고급
수록 형태	전문 요약(3개의 내용 단락)
수록 내용	옛날 옛날에 흥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았어요. 동생 흥부는 마음씨가 곱고 착한 반면에 형 놀부는 심술궂은 욕심꾸러기였어요. <중략> 흥부 소식을 들은 놀부는 당장 달려와서 흥부한테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물었어요. <중략> 도깨비와 귀신이 나와 놀부를 혼내고 놀부 집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답니다.
내용 이해 보조 수단	삽화
학습 목표	줄거리 전달하기
연습 활동	1. 옛날이야기를 하나씩 나누어 읽은 후 그림을 보면서 짝에게 전달하십시오. 2. 읽은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1) 흥부와 놀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2) 흥부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3) 놀부는 흥부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4) 흥부와 놀부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3. 함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1) 여러분 주위에 놀부와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2) 여러분 나라의 전래 동화에는 어떤 동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3) 여러분 나라의 대표적인 전래 동화를 소개해 주십시오.

연습 활동의 성격은 문화 작품으로서의 접근을 통해 작품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3의 3)번 활동은 학습자의 문화와 목표 문화 사이에 현저히 다른 항목을 선택해 그것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화 교육 방법을 고려했던 것이다.<sup>4)</sup> 이와 같은 교육 방안은 현행 표준 평가로서 권위를 갖는 한국어능력시험의 고급 단계 목표 ‘자주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과 대표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 문화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에 어느 정도 일치한다.

〈표11〉 한국어 교육의 목표(한국어능력시험의 등급별 목표)

초급	1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 기능을 수행하고 매우 사적이고 친숙한 화제에 대해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약 800개 기초 어휘와 기본 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단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 간단한 생활문과 실용문을 이해하고 구성할 수 있다.
	2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약 1500개~2000개의 어휘를 이용하여 사적이고 친숙한 화제에 관해 문단 단위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공식적인 상황과 비공식적인 상황에서의 언어를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중급	1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다양한 공공시설의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기초적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친숙하고 구체적인 소재는 물론 자신에게 친숙한 사회적 소재를 문단 단위로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 문어와 구어의 기본적인 특성을 구분해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공공시설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뉴스, 신문 기사’ 중 평이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회적 추상적 소재를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자주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과 대표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 문화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4) 문화 교수 방법으로는 비교법, 문화 동화 장치, 문화 캡슐, 문화 섬, 참여 관찰, 관찰, 영상물이나 출판물 활용 등이 있다.(Hughes 1986:167-168, 한상미 2005 재인용)

고급	1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소재에 관해서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공식적 비공식적 맥락과 구어적, 문어적 맥락에 따라 언어를 적절히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2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수행할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친숙하지 않은 주제에 관해서도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 원어민 화자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니 기능 수행이나 의미 표현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국어 교육에서나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학 교육은,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의 관계성 정도에 따라 학습 목표가 달리 적용된다. 기초 언어 능력 향상을 필요로 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과 한국어 초급·중급 단계의 학습자들은 문학 자료의 역할보다는 언어 학습 자료로 활용되어 특정한 언어 기능 수행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기초 (한)국어 능력을 넘어서는 단계에서는 문학 작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문화적 정서를 성취하는 것으로 그 목표가 변화한다. 학습자의 수준에 따른 목표는 어느 정도 유사성을 보이는데, 목표 수행을 위한 활동의 적절성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고급 단계에서는 문학 작품의 가치를 해석하고 의의를 찾아보는 연습 활동을 좀 더 마련하여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전 작품들은 현대 사회와 유리되어 여러 면에서 성격을 달리하므로,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 표피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갈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 고전 작품까지 경험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인과 한국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눈앞에 펼쳐져 있는 사물과 현상뿐만 아니라 그것을 형성하는 근간이 되는 전통과 문화에 접근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 고전 문학 작품을 보는 것은 전통적인 한국 문화를 지식과 감성 전반으로 접하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다만 고전 문학 작품들은 어휘나 표현 및 배경 등 여러 면에서 한국어 교육 자료로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원전의 선정에서부터 표현과 내용의 재구성 등까지 교육적 처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이 고전 작품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꺼리는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 4. 결론

한국어 교육은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기업체에 취업하기 위하여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주된 대상이었고, 이들에게 폭넓게 한국의 전통이나 문화를 요구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이주 여성이 많아졌고, 한국에서 대학/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다. 이주 여성들은 앞으로 계속하여 한국에서 살게 되므로 한국의 전통 문화 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 한국에서 대학 이상의 고등 교육을 받을 학습자들도 한국 문화에 대해 넓고 깊은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한류 등에 호감을 갖거나 익숙하여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교육적 현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한국어 교육도 다양한 목적과 목표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과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더불어 이런 교육 조건과 환경에 따라 한국 고전 문학 작품들을 한국어 교육에 도입하는 문제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고전 작품들이 한국어 교육에 적절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학습 내용으로 선정하는 고전 작품

은 내국인에게 매우 익숙한 것으로 하되, 이를 위해 국어 교육의 목록을 참고하는 것이다. 3장에서는 한국어 교육과 국어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전래 동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어 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작품을 학습 자료로 활용하는 것 이외에도 내용과 목표를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습자가 내국인과의 의사소통에서 동일한 배경 지식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습자 흥미를 돋우기 위해 고전 작품의 작가 정보, 줄거리, 비평 등을 반영하며, 원전의 스토리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고전 문학 작품을 중·고급 단계 이상에서 접하는데, 이 단계의 언어 수준에서는 고전 작품의 이해 및 분석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다.

셋째, 목표 문화권인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고전 작품의 역사, 문화적 배경, 교훈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문화적 배경 등에 대한 정보가 명시적으로 제시된 경우가 거의 없었다. 국어 교육에서처럼 간단하게나마 교재에 제시한 고전 문학 작품의 문화적 정보를 보이거나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는 알 수 있는 우리 민족의 가치관을 분석해 보는 활동 등으로 이를 대신하는 것이 좋겠다.

넷째, 학습자가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전 작품의 언어는 학습 단계 전에 제공하여 작품 내용에 좀더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목표 어휘 수는 대략 20개 이하 수준이다. 어휘 교육과 읽기 교육이 1~2시간의 정해진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이런 현실적 제약은 있으나, 문학 작품의 이해를 목표로 하는 수업에서는 고전 문학 작품의 가치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는 요구되는 학습 어휘 목록을 더 늘리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고전 문학 작품에 쓰인 어휘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뜻풀

이 정보 이외에 문화 관련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상호텍스트 및 매체를 활용한 교수 방법을 개발하여 교수 방법의 다양화를 꾀한다면 고전 작품도 ‘고전’의 어려움이 조금은 눌린 채 한국어 학습자에게 교육 내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춘향전을 읽기 전 혹은 읽기 후의 활동으로 영상물로 제작된 춘향전을 보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또한 문어 자료와 함께 그림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과제로 이야기재구성하기 등을 시행할 수 있다. 그림과 같은 이미지 매체는 텍스트 내용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텍스트만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관련 배경 지식을 제공하는 데 활용이 가능하다.

이상과 같이 한국인과 한국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형성하는 근간이 되는 전통과 문화에 접근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한국의 고전 문학 작품을 보는 것은 전통적인 한국 문화를 지식과 감성 전반으로 접하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고전 작품의 교육적 필요성과 교육 자료로서의 고전 작품과 교육 목표·내용 등은 국어 교육의 그것과 유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개작의 정도 등 교육에서 실질적으로 문제시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갖는다. 이는 후고를 기약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강혜민, 「고전소설을 통한 한국어교육」,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개정 교육과정 고시』, 별책 5, 2011.
- 김대행,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학」,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3, 서울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 과정, 2000.
- 문보라,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 서희정,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고전 서사문학 작품 선정 방안」, 『고황논집』, 경희대학교, 2005.
- 신윤경,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학 텍스트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 윤여탁,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법」, 『국어교육연구』6,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1999.
- 이선이,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2.
- 이성희, 「설화를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1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99.
- 이지영,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전승과 그 특징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15, 2008.
- 장원기, 「고전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연구」, 대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0.
- 정소영,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전래동화의 설화 수용 의식과 교육적 의미」, 『새국어교육』73, 한국국어교육학회, 2006.
- 조항록, 「한국어 문화 교육론의 주요 쟁점과 과제」, 『21세기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2002.
- 주은정,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 한상미, 「한국어 문학 교육론」, 『한국어 교수법의 실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 홍서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학 텍스트 분류 방안」,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 황인교, 「문학 교육의 연구사와 변천사」, 『한국어교육론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편, 한국문화사, 2007.

Allen, J.P.B., A three-level curriculum model for second-language education,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40(1), 1983.

Terdal, M.S., Watching whole language work, *TESOL Journal* 3, 1993.

\* 한국어 교재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경희한국어』 초급1~고급2,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3.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재미있는 한국어』 1~6, 교보문고, 2007~2011.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서강한국어』 1A~5B,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출판부, 2006~2008.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한국어』 1~6,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2009.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이화한국어』 1~6,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0~2012.

ABSTRACT

A Competitive Study on Teaching Classical Literature Works between  
for Korean Natives and for Korean Learners  
-focusing on traditional fairy tales-

Kim, Seo-hyung

This study aims to find a teaching method for Korean classical literature works in Korean language teaching for foreigners. To do this, there is a review of classical works and educational objectives and content of them to be educated in Korean Teaching as Foreign Language (KFL). Then, there is something to find how classical works education for the natives can be applied for KFL.

After Korean learners are up to the intermediate and high level, they have to understand Korean recognition world and Korean society culture. If Korean traditional culture is contained in the thing Korean learners acquire, there is no difference from educational contents for the Korean natives. Hence, this study started in the assumption that the literature works what the natives have known was taught at elementary school and then compared with works in materials between Korean for the natives and Korean for the foreigners.

Consequently, making objectives of teaching·learning is decided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of language and culture teaching·learning. However, that activity for performance is different between Korean for the natives and Korean for the foreigners. In curriculum, the objective is changed from means for taking basic language ability Korean to getting culture for the natives, whereas the objective is for taking language ability Korean for the foreigners. On this wise, two things are supplied; one is activities for finding and comprehending the value of literature works on higher level. There is changing the objective from means for taking basic language ability Korean to getting culture.

**Key Words** curriculum of Korean for the natives, curriculum of Korean for foreigners,  
objective of teaching and learning, Korean traditional tales

논문투고일 : 2013. 03. 31

심사완료일 : 2013. 05. 30

게재확정일 : 2013. 06. 02